



머리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 37)”



+ 찬미 예수님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구 안에 50년 이상 되는 단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단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축하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50주년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탄생은 한국교회의 태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선조들의 열망으로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역시 그러합니다. 신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스스로 활

동하면서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교구에 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자발적 단체를 승인한 것이 1970년 4월 2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태동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역시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에는 우리 신앙 성조들의 순교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단 순히 이 반세기를 이어올 뿐 아니라,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튼실한 위원회가 되기까지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후원회원분들과 시간과 땀을 내어 희생하신 봉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현대의 순교’요, ‘일상의 순교’일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신 교정사목 후원 회원분들, 봉사자분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7-8)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오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교정사목 신부님, 직원, 봉사자들과 후원자분들의 활동과 후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이 시대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기길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창립 50주년 축하드리고, 예수님의 일을 묵묵히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하느님 빛을 전하시길 청하며, 저 역시, 수용자들과 출소자들,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천주교 담당 교도관 간담회



2월 12일(수) 천주교 담당 교도관 간담회가 교정사목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천주교 담당 교도관과 각 교정시설 대표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 및 요구사항들을 나누며, 수용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도움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늘 약자의 편에서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에게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창5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2월 22일(토)~23일(일) 창5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마태 5,46)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사람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히는 사람까지도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교정사목의 활동들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사형수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도둑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라며 “물론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지만,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고 가장 바닥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가족이 되어 주기를 간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창5동 성당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교정시설의 모든 집회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행사가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모든 행사 중지가 수용자들에게는 더 가혹할 것입니다. 수용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의 극복을 바라며,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늘 곁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50주년을 맞이하여 장기 봉사자들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김춘희 아기안나

(서울구치소 여사 / 10년)

수용자와 함께한 지난 세월에 크고 작은 변화의 기적들로 50주년을 맞이함을 축하합니다. 수용자, 교도관, 봉사자, 후원회원님들

이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였습니다. 증거의 봉사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에 맡기며, “보시니, 참 좋았다”처럼 복된 삶에 초대받은 하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혼인 잔치에 초대해 주신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감사로 전합니다.



박봉예 까리따스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 30년)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의 창립 50주년을 주님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반백 년이 지났네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먼 옛 시간이나 지금 이 시간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봉사자, 후원회원, 교도관과 그밖에 알게 모르게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과 함께 이 기쁨을 축하하며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선 안젤라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 20년)

그리스도의 평화♡

1년 사계절이 세월 따라 변해가도 간헐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은 엄마의 따뜻한 품처럼 커져만

갑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전하는 작은 위로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구원을 위한 생명의 길이란 걸 되새깁니다.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잊지 않고 앞으로로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믿음과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정사목 50주년 축하드립니다. ♡♡♡



이계숙 베로니카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 30년)

교정사목 창립 50년을 축하합니다.

어느덧 반세기를 맞는군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봉사

자를 반기는 수용자들, 젊음과 애뜻한 사랑과 추억을 구치소에 고스란히 묻으며 매년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돌아옵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꿈나무들에게 사랑, 성령의 물과 밀거름의 말씀을 듬뿍 뿌립니다.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신부님과 한뜻으로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한 줄기 빛을 밝히며, 오늘도 담장 안으로 향합니다. 하늘을 향해 한길을 걷게 해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봉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처음 교정사목은 주로 교도소 근처의 본당과 관심이 있는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후 조직적인 사목의 필요성을 느낀 서울대교구는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50년 동안의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970년 4월 2일 '가톨릭 서울대교구 교도소후원회' 창립총회 / 명동성당



1975년 9월 교도소후원회 소식지 '빛' 창간 (현재 '빛의사람들' 소식지)



1976년 7월 수용자 영세 / 영등포구치소



1985년 9월 무기징역 박진영과 이부순의 결혼 12월에 김수환 추기경님 방문



1990년 3월 20일 교봉중등학교 개교 8월 첫 여름신앙학교



1990년 5월 김수환 추기경님 금호동 평화의집 방문 (1988년 3월 평화의집 개원)



1990년 12월 사형수 안치 / 광탄 나자렛 묘원 (전경수 요한 대건안드레아 프란치스코, 손오순 스테파노)



1991년 7월 김수환 추기경님 집전 견진성사 / 영등포교도소



1991년 9월 사형수 묘지 방문 / 광탄 나자렛 묘원 (현재 11월 사형수 위령미사 및 연도)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시신 인도 / 서울구치소 (정은희 미카엘 시신 기증 / 강남성모병원)



1998년 4월 전국교정사목협의회 창립 (현재 한국가톨릭 교정사목협의회)



1998년 9월 후원회원아와 미사 / 정약용 마재 생가터 (현재 5월 후원회원아와미사)



1999년 9월~12월 제1차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2003년 12월 교황대사 서울구치소 최고수 미사 / 서울구치소



2005년 5월 '빛의사람들' 교정사목센터 축성식



2006년 11월 범죄피해자 가족 '해밀' 첫 모임



2007년 6월
‘해밀’과 김수환 추기경님
만남



2007년 12월
‘해밀’과 최고수 미사 /
서울구치소



2008년 6월 기쁨과희망은행 창립식 / 명동 교스트홀



2009년 12월
교정사목센터 ‘빛의사람들’
별관 축복식



2010년 4월
창립 40주년 기념미사 /
명동 교스트홀



2010년 9월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 /
명동성당



2012년 12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님 집전 견진성사 /
서울남부교도소



2013년 6월
기쁨과희망은행 창립 5주년
심포지엄 / 명동 교스트홀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문
(해밀 가족 영접)



2014년 8월
기쁨과희망은행 창업대출
1호 완납자 /
OOO 갈매기



2014년 12월
염수정 추기경님 집전
해밀가족 세례식 /
명동 교스트홀



2015년 1월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
교 염수정 추기경님 집전
파견미사



2017년 6월 12일
서울남부교도소
HAPPY CONCERT



2018년 6월 24일
기쁨과희망은행 10주년 미사



2020년 1월 22일
창업준비센터 개소식



존경하는 현대일 신부님께 올립니다.

신부님, 그동안 안녕하시는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이 무사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도 무탈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된 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느님을 찾게 되었고, 통신교리 공부를 통해서 2018. 12. 5. 김도훈 라파엘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지금은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하느님의 부르심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으나 외면하고 제멋대로 생활하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더는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가톨릭에 귀의하면서 참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신부님을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린 채 이렇게 대구교도소로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은 잊지 못할 소중한 장소이고, 신부님의 은혜로운 강론 말씀들(형량을 신앙으로 거래하려 하지 마라)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음악 봉사자와 함께 참석하신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까이하려고 하지 않는 수용자들을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과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 나누어 주신 자매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신부님과 봉사자분들의 정성 어린 관심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출소 후 저 또한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의 길을 갈 생각입니다.

제가 세례받을 때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정해주신 대부님과도 지금도 서신으
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물론, 기도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자상하신
대부님입니다.

저의 대부님과 인연을 맺어주신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출소 후에 꼭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올릴 생각입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푸신 김도훈 라파엘 신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리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각오입니다.

신부님의 웃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쪼록 전염병으로 흔들리는 우리나라, 전 세계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탈
하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0. 02. 11

베드로 올림

서울구치소에서 세례를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하여 생활하는 형제가 현대일 위원장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코로나 19로 인하여,

- ▶ 4월 19일(일)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미사 → 12월 13일(일) 연기
- ▶ 5월 1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13~3/12)

2020년 2월~3월에는 창5동 성당 89명, 강기천 바실리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관련 사업 ●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소속인 타교구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의 구매와 작은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교정사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교구



- ▶ 느릅나무알로에로션 (250ml) ₩10,000 / 코코느릅알로에로션 (250ml) ₩11,000
- * 아토피, 피부 가려움, 피부 건조증 여드름 완화 효과
- * 항균효과-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
- * 코코느릅알로에로션은 코코넛 오일을 첨가하여 지속성 강화
- * 성분 : 알로에, 느릅나무, 글리세린, 라벤더 오일 / 코코넛 오일

▶ 수제 생강청, 레몬생강청(350ml) ₩13,000 (원산지 : 제주 아월)

- *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비타민C 첨가) * 혈액 순환 및 수족 냉증 개선(찬 기운을 몰아냄)
- *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콜레스테롤 배출) * 성분 : 생강, 흑설탕, 계피 / 레몬, 생강, 설탕



▶ 천연치약 (100g) ₩10,000

- * 미뢰세포(맛을 느끼게 하는 세포)를 건강하게 함 * 입안에 보습을 주어 침샘이 마르지 않음
- * 잇몸건강, 면역증강, 구내염, 황산화, 항균, 시린 이, 입 냄새 제거
- * 성분 : 천연글리세린, 천연 계면활성제, 죽염, 녹차분말 등

※ 구입문의 :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042)635-1115 / 5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수익금은 전액 대전, 천안, 공주, 홍성교도소 법무병원 수용자, 출소자,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 ▶ 수제롤케이크 ₩10,000
- ▶ 수제파운드케이크 ₩5,000
- ▶ 수제국창식빵 ₩5,000
- ▶ 수제우유식빵 ₩4,000
- ▶ 수제단팥빵 3개 ₩5,000
- ▶ 흑미식빵 ₩5,000
- ▶ 수제엄마빵 5개 ₩10,000
- ▶ 수제소보루빵 3개 ₩5,000
- ▶ 우리밀호두과자 30개 ₩10,000
- ▶ 수제찰보리빵 20개 ₩10,000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안동교구

- ▶ 사과즙 1SET(2BOX) ₩50,000
- ▶ 힐데자연치약 (가루형) ₩10,000
- (튜브형) ₩12,000

※ (치약은 최소 3개 주문) 택배비 포함 금액입니다.

※ 구입문의 : 안동교구 교정사목 054)874-2396

※ 계좌번호 : 농협 737-01-082846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수익금은 전액 안동교구 교정사목을 위해 사용됩니다.

대구대교구

대구대교구 교정사목에서 출소자들의 자활기관으로 운영하는 파스카 두부공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렵다고 합니다. 조그만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대구은행 065-05-703110-001 예금주 : 파스카교화복지회